

“천사 미소 뒤에 악의 기운이 있다네요”



‘신의퀴즈’ 종영…배우 김재원

“‘살인미소’가 진짜 ‘살인하는 미소’라고, 그 맛글 저도 봤어요. (웃음)” ‘원조 살인미소’라는 애칭을 가진 배우 김재원(38)은 최근 종영한 OCN 드라마 ‘신의퀴즈: 리부트’ 속 홍콩 최대 조폭 조직의 넘버투 현상필 역으로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머리부터 눈빛까지 악역으로 완전히 변신한 그는 등장부터 퇴장까지 화제가 됐다.

22일 논현동에서 만난 김재원은 “20년 가까이 연기했고 이미지에 변화를 주고 싶었던 적이 많았지만, 막상 선택 역 외에 다른 역할을 잘 주지 않았다”며 “그런데 영화 채널에 가까운 OCN ‘신의퀴즈’ 제안이 와서 바로 했다. 제가 생긴 건 ‘샌 남’인데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세상에 못 할 배역 없어… 악역도 시청자와 공감 가능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로맨스는 좀 어렵더라고요”

다. “이번에 제작사 대표께서 제가 채널A 예능 ‘도시어부’에서 고기를 며칠 동안 못 잡자 화내는 모습을 보고 ‘전혀 안에 악의 기운이 있다’며 캐스팅하셨어요. (웃음) 사실 저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어 연기하는 사람이라 악역에는 이질감을 느꼈지만, 현상필 역은 시청자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라 좋았습니다.”

현상필 등장 장면에는 잔인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김재원은 “OCN인데도 방송이라 심의가 제법 세서 못한 것들도 있다”며 “사실 개인적으로는 잔인한 걸 잘 못 보는데, 이번에는 ‘이런 것도 할 수 있

다’는 마음에 시원하고 상쾌했다”고 말했다. 김재원은 현상필 캐릭터가 작품이 진행되던 중 많이 보완되고 발전했다는 뒷이야기도 들려줬다. “처음에는 이름도 현상필이 아니었고, 조폭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악당 ‘조커’ 같은 느낌이 추가되면서 형제도 생기고, 고질병도 얻게 됐고, 안 죽기로 했다가 죽기까지 했죠. 때로는 이렇게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고 연기하는 게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게 ‘관록’인 걸까요? (웃음)”

그는 호흡을 맞춘 류덕환에 대해서는 “요새는 촬영장에 가면 선배들은 거의 없

고 후배들만 있는데 덕환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연기를 잘해서 참 좋았다”며 “자기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다해주시 서로 수월했다. 눈만 봐도 답이 나오니까”라고 칭찬했다.

김재원은 이번 작품을 통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에 만족한다고 했다.

“주변에서는 ‘네가 드디어 악역할 때가 됐지’라는 반응이에요. 예전에는 ‘미소 천사’ 이미지 때문에 제가 평소에도 안 웃고 있으면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별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못 할 역할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꼭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고요. 아,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로맨스는 좀 어렵더라고요. 하하.”

/연합뉴스

현빈·손예진 “미국서 만났지만 교제는 아냐”

“서로 미국 체류 중 알고 연락 사진 찍힌 곳 다른 지인 있어”

미국에서 찍힌 사진으로 연인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산 동갑내기 배우 현빈과 손예진(37)이 열애설을 부인했다.

현빈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최근 “두 배우가 워낙 친분이 있다 보니까 서로 미국에 체류 중인 걸 알고 연락을 취해 만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배우가 교제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시선에 대해선 “미국에서 지인 여럿과 함께 만났지만 두 사람만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이라 오해를 산 것 같다”며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예진 소속사 엠에스팀엔터테인먼트 관계자도 “손예진씨가 미국에 있는 지인을 방문하던 중 마침 미국에 있던 현빈씨와 연락해서 만났다”며 “두 배우가 친한 것일 뿐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진이 찍힌 장소인 마트에 다른 지인들도 함께 있었다”고 덧붙였다.



영화 ‘협상’ 제작발표회에서 현빈·손예진

앞서 현빈과 손예진은 해외 마트로 추정되는 곳에서 장을 보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며 열애설에 휘말렸다. /연합뉴스

tvN 예능 ‘나이거참’ 정규편성…내달 12일 방송

tvN은 지난해 11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선보인 예능 ‘나이거참’〈사진〉을 정규 편성해 다음달 12일 오후 8시 처음 방송한다고 22일 밝혔다.

‘나이거참’은 나이도 생각도 너무 다른 할아버지와 10대 어린이가 함께 서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우정을 쌓아가는 내용의 관찰 예능이다.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전원철 변호사와 이슬림 어린이, 배우 변희봉과 김강훈 어린이, 가수 설운도와 한소영·가영 자매가 화제가 됐다.

이날 공개된 티저 영상에는 전 변호사와 이슬림이 보드게임 카페에서 재화하는 모습이 담겨 궁금증을 자아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세계 최고를 찾아라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출발! 드라마 여행 2019 드라마 미리보기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왜그래 풍상씨(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붉은 달 무어 해(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다큐 공감(재)	00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35 김신영의 TMI 언더나인티(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꼬마돌도도 2 55 내 사랑 치유기(재)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55 5 MBC 뉴스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곡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스페이스 벅스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5 내 사랑 치유기(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미니다큐	50 원소잡이 아내	15 용왕님 보우하사 55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고령견등록 남도에 살려리었다 30 생방송 TV블로그 쏘지락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실화탐사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55 나의 독립 영웅 <서영해>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습터	00 왜그래 풍상씨	00 봄이 오나 봄	00 황후의 품격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옥탑방의 문제아들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웅감한 소방차 레이 07:30 꼬마버스 타요 08:00 당동댕 유치원1~2 08:30 미니특급대 X 08:45 랄랄라 뽀우 09:00 엄마 까투리 09:30 원더볼스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불닭 치즈구이와 황태 부추김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특집 다큐 〈다문화 가족 상봉 프로젝트, 만남〉 13:00 지식채널e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3:40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14:30 코코몽3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웅감한 소방차 레이 16:30 랄랄라 뽀우(재) 16:45 당동댕 유치원1~2(재) 17:15 엄마 까투리	17:30 꼬마버스 타요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5 19:00 피피루 안전특급대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화산섬의 비밀 19:30 EBS 뉴스 19:50 메디컬 다큐-7요일 20:40 세계테마기행 〈지금 여기 우리.타이완 3부 오래된 길을 걷다 신주〉 21:30 한국기행 〈겨울, 고수를 만나다 3부 별난 고수의 겨울일기〉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극한직업 23:55 EBS 초대석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3일(음 12월 18일 庚申)

 子	36년생 이재를 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8년생 편의를 도모하다가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 60년생 부족함이 뚜렷하니 속히 보완토록 하자. 72년생 허심탄회한 자기 성찰 속에서 파격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84년생 망심해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34, 97	 午	42년생 시세와 국량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라. 54년생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한다. 66년생 보류해 왔던 일들을 처리하라. 78년생 무난하게 통과하게 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90년생 가벼운 언행이 시비로 비화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66, 42
 丑	37년생 분수를 지킨다면 흉사를 비껴갈 수 있다. 49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함이 능률적이다. 61년생 반북되는 횡수가 늘어나면서 적응하게 되리라. 73년생 정도에 지나치지 않는 것이 무난하다. 85년생 알고도 가만히 있음이 나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7, 77	 未	43년생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55년생 오랜 회포를 풀게 되는 기쁨이 보인다. 67년생 선점하지 못한다면 불리하다. 79년생 학수고대하여 왔던 행운의 문이 열리는 기쁨을 맞이하겠다. 91년생 현대로는 아니 될 일이니 혁신적인 방안을 도모 하라. 행운의 숫자 : 61, 63
 寅	38년생 다자 관계를 염두에 두고 처리하라. 50년생 활영 여부에 따라 변화의 폭이 달라진다. 62년생 앞한 성국이니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74년생 마음만으로는 무의미하므로 착수해야 가치가 있다. 86년생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살피라. 행운의 숫자 : 17, 86	 申	44년생 아예 꾀도 꾸지 않는 것이 속 편하리라. 56년생 한계를 일탈하지 않도록 하자. 68년생 숨은 뜻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하다. 80년생 현재의 면모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추세까지 감안하는 것이 맞다. 92년생 원칙을 고수하자. 행운의 숫자 : 53, 18
 卯	39년생 비중 있는 곳에 시간 할애를 하는 것이 이익이다. 51년생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63년생 귀가 솔깃해질 일이 생기겠다. 75년생 이동수나 매매에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87년생 여러 곳에서 손질해야 할 부분이 눈에 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8, 36	 酉	45년생 끈질긴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57년생 치위 버려도 무방할 것이니라. 69년생 평생토록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81년생 일단 수용하고 나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실질적이다. 93년생 간단명료한 것이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 57, 03
 辰	40년생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2년생 가슴에만 묻어 두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64년생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76년생 분명히 이행하여야 향후의 처세에 지장이 없으리라. 88년생 결연한 의지가 요망된다. 행운의 숫자 : 09, 99	 戌	34년생 계속될 것이다. 46년생 비단 옷 위에 꽃을 더한 격이로다. 58년생 집착을 버리고 자유로운 상태로 놔두는 것이 무난하다. 70년생 보이지 않으면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의 영향력이 크다. 82년생 성패를 의식하지 말고 묵묵히 실행함이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67, 43
 巳	41년생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하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53년생 멋스럽다. 65년생 석연치 않다면 선회하는 것이 유익하다. 77년생 평소애 잘 관리해 두었었다 지금 활용하기에 적절한 시기에 이르렀다. 89년생 상호 연관관계까지 감안함이 나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0, 65	 亥	35년생 전제를 아우를 줄 아는 성숙함을 보일 때다. 47년생 영향력이 커지는 대국에 놓여 있다. 59년생 공명 정대한 자세로 당당하게 임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71년생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별로다. 83년생 행운의 탄성이 울려 퍼지리라. 행운의 숫자 : 58, 95